

제 목	국 문	우리나라 병원의 재원기간 추이		
	영 문	A study on the trends in the length of hospital stay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조 우 현 ¹⁾ , 전 기 홍 ²⁾ , 강 임 옥 ²⁾ 1)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Woo Hyun Cho ¹⁾ , Ki Hong Chun ²⁾ , Im Ok Kang ²⁾ 1) College of Medicine, Kyunghee Univ. 2) College of Medicine, Ajou Univ.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강 임 옥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5년 10월			

1. 연구 목적

병원의 외부환경이 불리해짐에 따라 병원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병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다. 병원관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평균재원기간이다. 우리나라의 병원은 평균재원기간을 줄임으로써 병상회전율을 증가시켜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재원기간 감소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병원 중 병원표준화심사를 받은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15년동안의 우리나라 병원의 평균재원기간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병원표준화심사를 받은 병원을 대상으로 총 관찰수 2,044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단위는 병원의 연도별 자료이다. 병원의 연도별 퇴원환자 연인원수와 실인원수를 이용하여 평균재원기간과 과별 재원기간을 산출하고,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병원의 특성(병상규모, 지역특성, 소유주체)에 따라 재원기간의 변화 추이를 보았다.

평균재원기간의 연도별 변화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분석자료 중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동안의 자료가 모두 있는 96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개별병원들의 재원기간의 추이를 하나의 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1) 평균재원기간은 병상규모가 커질수록 길어지고 있다. 연도에 따른 병상규모별 재원기간의 추이는 400-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상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진료과별 평균재원기간의 추이를 보면,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의 평균재원기간은 약간 감소하거나 거의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산부인과는 약간 증가하고 내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내과환자의 평균재원기간을 병상규모별, 지역특성별, 소유주체별로 구분하여 보면 그 변화의 특성이 전체 병원의 평균재원기간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소유주체별로 평균재원기간을 보았을때 모든 구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구분별로 평균재원기간의 추이를 보면 모든 지역구분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병원의 평균재원기간의 증가율은 전체 병원의 평균재원기간의 증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1980년대 초에 비해 점차 지역간 평균재원기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5) 개별 병원의 재원기간의 추이와 각 병원의 특성을 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도 전체병원의 평균재원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이상의 연구결과로 보아 평균재원기간을 병상규모별, 진료과별, 지역특성별, 소유주체별로 구분하여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구분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병원은 재원기간의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